

082221 주일설교 “끝까지 서있기 위험이라” 에베소서(Ephesians) 6:10-20

오늘 성경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전신갑주(full body armor of God)를 입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전체에 ‘전신갑주’ 라는 단어는 에베소서 6장에만 딱 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전신갑주라고 하니깐 옛날 영화나 드라마가(사극이) 생각납니다. 오늘날 우리 일상하고는 참 거리가 있는 표현이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옛날 옛적 이야기만으로 지나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말하길 성도의 삶에는 예나 지금이나 영적싸움이 있다고 했거든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싸움을 의식하고 살아야 하구요, 그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을 말하는지 바르게 이해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는 전신갑주의 구체적인 설명으로 5가지의 방어 장비와 1가지의 공격 장비를 언급하고 있어요. 1.진리의 허리띠/belt, 2.의의 호심경/Kevlar vest, 3.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boots, 4.믿음의 방패/shield, 5.구원의 투구/helmet, 1.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sword. 오늘은 이 하나 하나가 무슨 의미인가 살펴보기 보다는 이것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는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먼저, 군대를 다녀오신 성도님들은 아시겠지만 군인들에게겐 완전군장이라는 것이 있지요. 완전군장을 하면 굉장히 무겁고 거추장스럽습니다. 한때 한국군 기본 완전군장의 무게가 48.7kg이었었는데 지금은 경량화되어서 38.6kg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실제 싸움을 싸울 때 완전군장은 군인의 생명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고 적에게는 타격을 가하게끔 해줍니다.

케블라 헬멧 하나만 해도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한참을 쓰고 있으면 목이 아프고 어깨가 쉼려요. 하지만, 그 헬멧이 총알이나 여러가지 파편에서 머리를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 옛날 화살과 창이 유일한 무기였던 때에는 이를 막을 수 있는 방패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오늘날엔 대신 방탄 조끼를 입지요. 험한 지형에서도 잘 뛰어다닐 수 있도록 전투화를 신고, 허리띠를 차고 거기에 탄창도 달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평소에는 참 거주장스럽어요. 무겁구요 불편해요. 그런데 실제로 전투가 일어나면 어떨까요? 이것이 거주장스럽게 느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보호해 주고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 우리 신앙생활과 연결고리가 있어요. 영적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평소에!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해요. 평안할 때는 기도생활, 말씀생활, 예배생활이 거주장스럽고 귀찮구요 번거롭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신앙의 훈련은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성도들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영적 싸움에 방패가 된다고 했어요. “야, 예수 믿어서 뭐해? 당장 좋아지는 것도 없자나! 21세기 과학기술문명이 발달한 이러한 때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구? 교회 안빠지고 예배드리면 뭐해 삶의 문제는 여전하잖아. 기도하면 뭐해 소원이 이뤄지지도 않자나.” 이와 같은 의구심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흔들어 댁니다.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어요. 믿음이 도대체 뭔가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라고 세게 선포하면 믿음이 있는 건가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두요, 예수님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시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주인이되어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주 예수를 믿는게 아닌거죠!

우리는 이 대목에서 각자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해요. 나는 과연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믿고 인정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 눈 앞에 스톱이나 허리케인이 몰려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시라면, “괜찮아, 주님께서 나의 앞길을 지키실 줄 믿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더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결국 푸른초장으로 인도하실 줄 믿어!” 오늘 성경은 이와 같은 내적 갈등, 혹은 싸움이 곧 영적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옛날엔 칼로 공격했고 오늘날엔 총으로 공격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 싸움에서는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된다고 오늘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어요. 해서 믿음의 방패와 성경 말씀은 싸움이 있기 전에,

즉 평소에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실제로 영적 싸움을 싸우게 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처럼 디테일하게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 말하는 이유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싸움에서 이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한가지 오늘 성경 말씀에 주목해 볼 것이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목적은 끝까지 서있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승리하는 것이 싸움의 끝일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싸움이 끝나고 이기고 나서도 계속해서 서있기 위해서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사하라 사막에서 사는 유목민 투아레그족은 독특한 교육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10대 아이들 중 일부를 뽑아서 어른 몇 몇과 함께 혹독한 모래 폭풍이 몰아치는 사막 중심부로 여행을 보냅니다. 그 여행의 목적은 신비한 마법의 돌을 찾아오는 것이라고 말한데요. 부족 원로들은 그 돌이 어떤 고난 속에서도 자신과 가족을 지켜주는 신비의 돌이라고 설명하고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죠. 여행을 떠나기 전 사막을 잘 아는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여행이 힘들더라도, 절대 힘들다고 말하지 말라고 꼭 당부한데요.

사막의 폭염과 혹한, 모든 것을 집어 삼키는 모래폭풍, 맹독을 가진 방울뱀과 전갈 등, 곳곳에 도사린 위험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언제나 주위를 살피는 부지런함과 어려움을 참아낼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하지요. 또 결코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는 용기, 오아시스를 찾아낼 수 있는 정확한 판단력도 필요합니다. 이미 과거 여행 경험이 있는 어른들은 능수능란한 행동과 판단으로 여행을 이끌고, 아이들은 이를 보고 배워나가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배워나간 행동과 판단들은 아이들의 삶의 습관으로 자리 잡혀나갑니다. 그렇게 험난한 행군을 한 지 수개월 만에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산에는 거친 돌멩이만 굴러다닐 뿐 그토록 기대한 마법의 돌은 어디에도 없었다고 해요. 고생한 보람이 없다며 실망하고 푸념하는 아이들에게 어른들은 그제서야 이렇게 말해준다고 합니다. "여행하면서 들인 습관이 바로 마법의 돌이다. 너희는 이제 고난에서도 자신과 가족을 지키는 신비한 능력을 지니게 되었다."

좋은 습관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생각의 방식이나 일을 하는 행태는 95퍼센트가 습관에서 비롯된다고 해요. 사람은 습관이 이끄는 대로 움직입니다. 자신의 습관이 어떠한 지를 살피면 반복되는 실패의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영국의 시인이요 극작가인 존 브라이든은 “처음에는 우리가 습관을 만들었지만 나중에는 습관이 우리를 만든다” 고 했습니다. 습관은 습관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습관을 만드는 일은 크고 위대한 목표로 부터가 아니라 작고 소소한 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루에 한 번씩 팔굽혀펴기를 하자는 목표를 두고 꾸준히 실천하면 운동하는 습관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나쁜 습관을 끊기 보다는 좋은 습관을 기르는 것이 더 빠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연결해 볼 수 있는 연결고리가 있어요. 우리에게도 경건의 훈련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성경말씀을 내가 직접 읽는 훈련, 무슨 일의 하든지 시작과 끝을 기도로 하는 훈련,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성경 말씀을 적용해 보는 훈련... 선택을 해야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스스로 묻는 훈련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도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나서 신앙생활 괜히 시작했다고 신세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훈련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꾸 상황을 보고 사람을 보느라 하나님을 놓치기 때문에 필요한 거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얼핏생각해 보면, 모든 일을 행했으면 이제 좀 앉아서 쉬어야 잠아요. 허리띠도 좀 풀고 긴장도 풀고 해야죠... 서있는 것이 뭐 그리 중요하길래 말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끝까지 서있다는 것은, 먼저 동분서주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고, 반대로 아무것도 안하고 앉아 있거나 누워있거나 가 아니라 두발로 이 땅을 박차고 담대히 서있는 모습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일단 서있다는 단어를 보면 히랍어로 [히스테미, histemi]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와같은 개념을 희브리어 성경에서 찾아 보시면, [야샤브, yashab]라는 동사로-그 뜻은 ‘굳건히 서다, 가만히 서다’ 입니다. ‘서있다’ 라는 단어가 쓰인 본문의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약속의 땅으로 갈 때에,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끄십니다. 더욱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런데, 앞에 홍해 바다가 놓여있고, 뒤에는 애굽의 병거들이 그들을 잡기위해 달려올 그 때에, 그들은 지금 그곳까지 그들을 인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들은 그들에게 닥친 문제만을 바라보고, 동분서주하며 하나님과 그의 종 모세를 원망하기에 이릅니다.

그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너희는 잠잠할찌어다.” 진퇴양난의 상황가운데 그들이 해야 할 첫번째는 다름아닌, 두려워하지 않기였습니다. * 우리가 끝까지 서기 위해서, 가만히 서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진 시점에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적으로 우세하니, 돌을 들어 이집트 병사를 향해 던지고, 가지고 있는 짐들을 이용해서 바리케이트를 만들고, 일부는 땃목을 만들어서 그 홍해를 3355씩 건너도록 하라라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워 말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해야 할 것이 오늘 바울 사도도 강조하고 있는 “가만히 서있기” 입니다. Stand firm(굳건히 서있기), stand near(하나님과 가까이 서있기), stand prepared(늘 깨어 준비되어 서있기), of quality one who does not hesitate(망설임 없이 서있기), to be of a steadfast mind(흔들림없이 서있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와 애굽의 군대 앞에서 영적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그 싸움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서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갑니다. 이 땅을 욕망의 바다, 어두운 세상, 험한 세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서 있어야합니다. 가만히 견디어 내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서있을 때를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어딘가를 향하고 서있음을 아실겁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말씀에서 우리가 향해야 할 방향에 대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데, "가만히 서서 무엇을 보라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말씀입니다.

서있다는 것은 팔짱 끼고 아무것도 안하고, 눈 꼭감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서있다는 것은 ‘어떡하지 어떡하지 분주해하거나 방황하지 않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잠잠히 하나님을 보고 있으라는 복음의 메세지입니다. 대단한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히 할 수도 없는 어떤 특별한 것을 원하시면서 왜 그걸 못했냐고 핀잔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단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승리의 삶을 사는 것이요, 결코 신앙생활에 있어 안주함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서 계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통한 그분의 사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도 홍해가 가로 막습니다. 애굽의 군사들과 같이 엄청난 두려움이 나를 삼키려고 달려옵니다. 그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서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도움을 볼 것이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외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사건에서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아니, 오히려 믿음이 더 확실해져야 합니다. 시간시간 새로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과거 한 때 잘 나가고, 믿음 좋았을 때 서있었다는 것, 오늘 본문은 이러한 신앙생활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 역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항상 내 앞의 어려움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두려운 맘을 주스르고, 가만히 서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문제는 내 앞의 어려움과 역경이 아니라, 역경 앞에 쓰러져 있거나, 동분서주하고 있는 내가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많이 쓰러지셨습니까? 더이상 일어나실 힘이 없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더!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그리고 우리를 위해 펼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을 손길을 경험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